

함평군, 찾아가는 '서부권역 한방통합 건강증진사업' 본격 시동

의료 취약지역 주민 생활터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남 함평군은 "지난 9일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부권역 한방통합 건강증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추운 날씨에도 4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진료와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 ▲경육환 만들기 체험을 통한 한방 건강관리 ▲염색·피부관리·손발 마사지·네일아트 등 미용 서비스 ▲웃음 치료 ▲건강 체조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전문 강사진 섭외는 물론, 함평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들은 손 마사지 교육을 받

는 등 전문성을 갖추었다.

이번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수준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집 근처 경로당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고민하



고 추진하겠다"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건강 100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마음 치유 in 함평'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여 군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장성군, 농촌 빈집 정비 팔 걷었다

김한중 군수 "살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장성 만들 것"

장성군이 새해부터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부속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이 이를 직접 철거할 때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호당 철거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33% 증액해, 올해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물이라면 가구당 최대 700만 원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지원 신청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오는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장성군은 올해 '농촌빈집정비사업' 철거비 지원 증액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연계를 통해 농촌 빈집 정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최근 파악된 장성 지역의 농촌 빈집 규모는 총 542동이다. 장성읍이 79동으로 가장 많고 북하면 70동, 남면 61동 순이다. 빈집이 가장 적은 곳은 서삼면(35동)이다.

1998년부터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해 온 장성군은 지난해까지 총 1452동을 정비하는 실적을 쌓았다.

한편, 장성군은 농촌 빈집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이나 건물을 군이 임대해 뒤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빈집 정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방치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마을 분위기를 쾌적하게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며 "살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강진군과 강진문화원이 추진한 '폼생폼사(폼생폼사) 강진향교'가 2023년에 이어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다시 한번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시행된 100여 개의 사업 중 지표별 세부기준에 따른 현장점검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향교·서원 활용 부문에서는 최종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난달 18일 대전전통나래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강진군을 비롯해 평택시, 보령

강진군, '폼생폼사 강진향교' 국가유산 우수사업 선정

국가유산청장상 수상 쾌거, 성과로 증명된 저력

시, 영주시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강진군은 '폼생폼사 강진향교' 프로그램이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하며 국가유산 활용 분야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폼생폼사 강진향교 프로그램은 유치원

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성인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다산인(人·in) 강진향교 프로그램은 다산 정약용과 차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다례 체험과 다산부모학교로 특히 인기가 많았으며, 인문학 강의 및 토론을 중심으로 기획된 다산살롱과 다산 지성 프로그

램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큰 호평을 받았다.

폼생폼사 강진향교는 우수한 체험 교보재를 개발해 자생력을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다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폼생폼사의 '폼'은 플랫폼(platform)을 의미한다. 문화와 교육, 체험이 공존하며, 자유롭게 교류하는 소통의 정거장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본격 운영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축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물 등 군 전반의 공간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활용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에 탑재된 '나만의 지도' 기능을 활용하면 부서별로 보유한 공간정보를 손쉽게 등록·관리·공유할 수 있어, 현장 중심의 업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종합공부, 건축행정, 도로명주소 등 주요 행정시스템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통계 자료와 시설물 위치 정보를 결합한 공간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무안군 제공



구례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구례군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친환경농업교육관과 다목적면민회관에서 진행되며, 전문반과 읍·면 종합반으로 나누어 총 6과정 13회로 운영된다.

전문반 교육과정은 지역 특화 작목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매실 ▲감 ▲미생물 ▲시설감자 ▲콩 5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읍·면 종합반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 재배관리 ▲월예작물 생육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해 농업인의 기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또한 공익직불제 교육을 함께 추진하여 직불금 지급 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 장동면, 20개 마을 경로당 순회... 새해 소통 행보

장흥 장동면은 새해를 맞아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지역 20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동면장은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경로당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과 생활 속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2026년 면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임연오 장동면장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면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